

국감 종료는 당권 레이스 신호탄... 與 주자들 전열 정비

‘차기 당권=2024 총선 공천권’ 힘 막강... 주자간 신경전 점화 현역 중진들 토론회 참석해 메시지... 전국 당협 방문도 ‘러시’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하고 있다. 주자들 간 신경전이 점화하고, 전당대회 물줄기를 둘러싼 계파간 대립 구도도 가시화하는 등 조기 과열 조짐이 나타나면서 ‘국감 종료’는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뛰어들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당 의원들도 국감 종료에 따라 당권 레이스에 더욱 더 촉각을 곤두세울 걸로 보인다.

차기 당권을 쥐는 이가 2024년 총선 공천권이라는 ‘절대 반지’를 손에 넣기 때문이다. 당권 주자들은 국감 기간 SNS 메시지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슈 파이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국감 이후에는 점차 현장 행보의 비중을 늘리며 조직 정비에 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현, 조경태, 윤상현 등 현역 중진들은 최근

당원 등을 대상으로 한 공개 토론회나 세미나를 통해 얼굴을 자주 보이고, 자신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공을 기울이고 있다. 전당대회가 언제 치러질 지도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당권주자들의 전국 당협 순례도 ‘러시’를 이룰 걸로 보인다. 전대 물은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인데, 친윤(친윤석열) 계열 중심으로 역선택 방지 명목으로 ‘당원투표 100%’ 주장까지 제기되는 만큼, 기회가 될 때 최대한 많은 당원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다만 친윤계 일각에서는 당권 레이스 조기 가열

에 문제 인식도 있는 걸로 알려졌다. 도전 여부를 고민 중인 걸로 알려진 한 친윤 인사는 통화에서 “집권 여당 최우선 책무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성공”이라며 “지지가 이 모양인데, 당권에 눈이 멀어 대의를 뒷전으로 내팽개친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20% 후반~30% 초반대 국정 지지율에 머무는 용산 대통령실 기류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한 비윤계 인사는 “결국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야 차기 당권에 ‘윤심’(尹心)이 작용할 여

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일종의 ‘지연 작전’을 쓰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비대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당대회가 축제로 치러지려면 세포조적인 당협 운영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며 “최소한 당협위원장 이 공석인 지역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편으론 경쟁 과열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 때문인지 아직 전대 준비와 관련해서 실무진 차원에서 정식으로 보고한 적도 없을 정도로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라고 내부 기류를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한·일 지자체장들 ‘손에 손잡고’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2일 힐튼 후쿠오카 히코호텔에서 열린 제30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무라오카 쓰구마사 야마구치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핫토리 세이타로 후쿠오카현지사, 김 지사, 난리 디카시 사가현부지사, 박원수 경남지사, 오이시 겐고 니가사키현지사. <전남도제공>

김영록 지사, 日서 탄소중립 신산업 ‘글로벌 전남’ 발표

코로나 이후 첫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지사회의 참석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2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에서 8.2GW 해상풍력과 그린수소 전주기 산업생태계 구축 등으로 탄소중립 신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전남’ 전략을 발표했다.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는 매년 한·일 두 나라 간 윤번제로 열린다. 이번 회의는 일본 후쿠오카현 오사카시에서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으로 이뤄져 23일까지 이틀간 이어졌다. 회의에는 한국의 전남, 부산, 경남, 제주도, 4개 시·도와 일본의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야마구치 등 4개

현을 포함 8개 시·도·현이 참가했다. 이번 회의 주제는 녹색성장 추진전략으로 각 시·도·현 지사들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자유주제를 통해 각 지역의 국제행사와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김 지사는 첫 날인 22일 ‘글로벌 탄소중립 신산업 허브 전남’ 주제발표를 통해 “탄소중립은 인류에게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지금 바로 실현해야 할 당면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남이 지난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등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이와 연계해 그린수소 전주기 산업생태계를

구축, 탄소중립 신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전남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다. 자유토론에서는 “탄소중립, 에너지 대전환은 국가 간 경쟁이 불필요하고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지구촌 문제이므로 8개 시·도·현지사가 함께 고민하고 성장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도·현지사는 녹색성장 추진전략 공동성명문도 발표했다. 공동성명문에는 제안된 녹색성장 대응 시도현 공동교류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 추진하고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각 시·도·현에서 열리는 국제행사를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훈민정음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은닉죄 검토해야”

이병훈 의원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병훈(동남구) 국회의원이 23일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회수를 위해 문화재 보호법상 은닉죄 적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글의 창제 원리를 자세하게 기록한 훈민정음 해례본은 두 점만 현존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때 간송 전형필 선생이 기와집 열 채 값을 치르고 구입해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간송본’(국보 제70호)과 2008년 상주에서 발견된 ‘상주본’이다. 상주본은 발견 이후부터 소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2011년 대법원은 상주본의 소유권은 현재 상주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배익기씨가 아닌 상주의 골동품상 조모씨에 있다고 확인했다. 2012년 조모씨는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고 사망했다. 대법원은 2019년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최종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에도 배익기씨는 상주본을 내놓지 않고 있다. 1조원의 가치가 있다며 그 10%인 1000억원을 주면 내놓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2015년 자택 화재로 상주본이 일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배익기씨 자택과 사무실 등 강제 집행을 실시했으나 상주본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병훈 의원은 “상주본이 세상에 모습을 보인 후 14년이 흘렀고, 더 이상 설득을 통한 회수는 어렵기 때문에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 소유 문화재를 무단점유해 숨기고 있는 행위는 형사적으로 문화재보호법상 은닉죄에 해당하고, 민사적으로 강제집행을 방해하고 전지를 불가능하게 한 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8만8000건 아직도 검증 중

김회재 의원 중기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8월 접수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9만 2천건 중 96%는 아직도 손실보전금 지급여부 검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 국회의원이 23일 중기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에서 8월 31일까지 진행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접수건수는 9만 2454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4011건(10월 14일 기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인정되어 손실보전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나머지 8만 8000건에 대해서는 아직 이의신청 사유별 제출서류를 검토 중이었다. 이의신청 이후 한 달이 넘게 지났지만 이의신청자 중 96%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5월 30일부터 총 2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이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이의를 신청한 소상공인들은 5개월 이상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온전한 손실보상’ 공약 파기 논란과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문제에 이어 이의신청 인정 지연까지 발생하면서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 고금리까지 겹치며 베팅 끝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상가, 신축부지 매매

1. 대인동 156평, 롯데백화점 옆
신안동 176평, 엄마요양병원 뒤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4. 매매 - 협의
5. 공동투자 하실분 모심

문의. 010-3605-5000